



# 자산가를 위한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 매뉴얼

가족법인은 은퇴한 고자산가에게 가업 승계와 재산 관리의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최근 2년간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방지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최신 세법과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법인 설립·운영 시 고려해야 할 세무 쟁점과 실무 전략을 제시합니다.

# 가족법인의 의의와 최근 세법 변화

## 가족법인이란?

가족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으로, 자녀 등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세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기업 형태로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최근 세법 변화

2023~2025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법인 관련 증여세 및 상속세 방지 규정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배당 vs 증여

이익 분배 시 세무 리스크 검토

### 특정법인 요건

지배주주 30% 이상 보유

### 지분 구조 설계

안전한 승계 전략 수립

# 배당과 증여의 기본 개념 비교

## 배당

법인 세후 이익을 주주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주주는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를 부담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 증여

특정 주주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직접 이전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는 최대 50%까지 누진과세되며,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있습니다.

- ❑ **중요:** 배당이 세율이 낮아 유리해 보이지만, 부모가 배당을 가장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어 배당+증여세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과배당의 위험성

초과배당은 일부 주주에게 그의 지분비율을 넘는 과도한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1

### 정상 배당

부모 70%, 자녀 30% 지분에 따라 배당금 7억 원, 3억 원 분배

2

### 초과배당 시도

부모가 배당 2억원 포기, 자녀가 5억원 수령

3

### 세무 결과

초과 2억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배당소득세와 이중 부담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분에 비해 적게 받음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과다하게 받는 경우 증여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초과배당 과세 메커니즘

## 2020년 이전

- 증여세액이 배당소득세보다 큰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
- 증여세 계산 시 소득세 상당액 차감
- 일부 절세 여지 존재

## 2021년 이후 강화

-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 증여재산가액에서 소득세 상당액 공제는 유지
- 실질적 절세 효과 거의 없음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초과배당 증여에 대해 과거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과 합산 과세 여부를 다루며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자녀 지분 설계 시 증여세 의제 사례

## 설립 시 과다 지분 배정

부모 자금으로 회사 설립하면서 자녀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경우, 자녀가 실제 출자 대가 없이 얻은 지분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 유상증자 시 할인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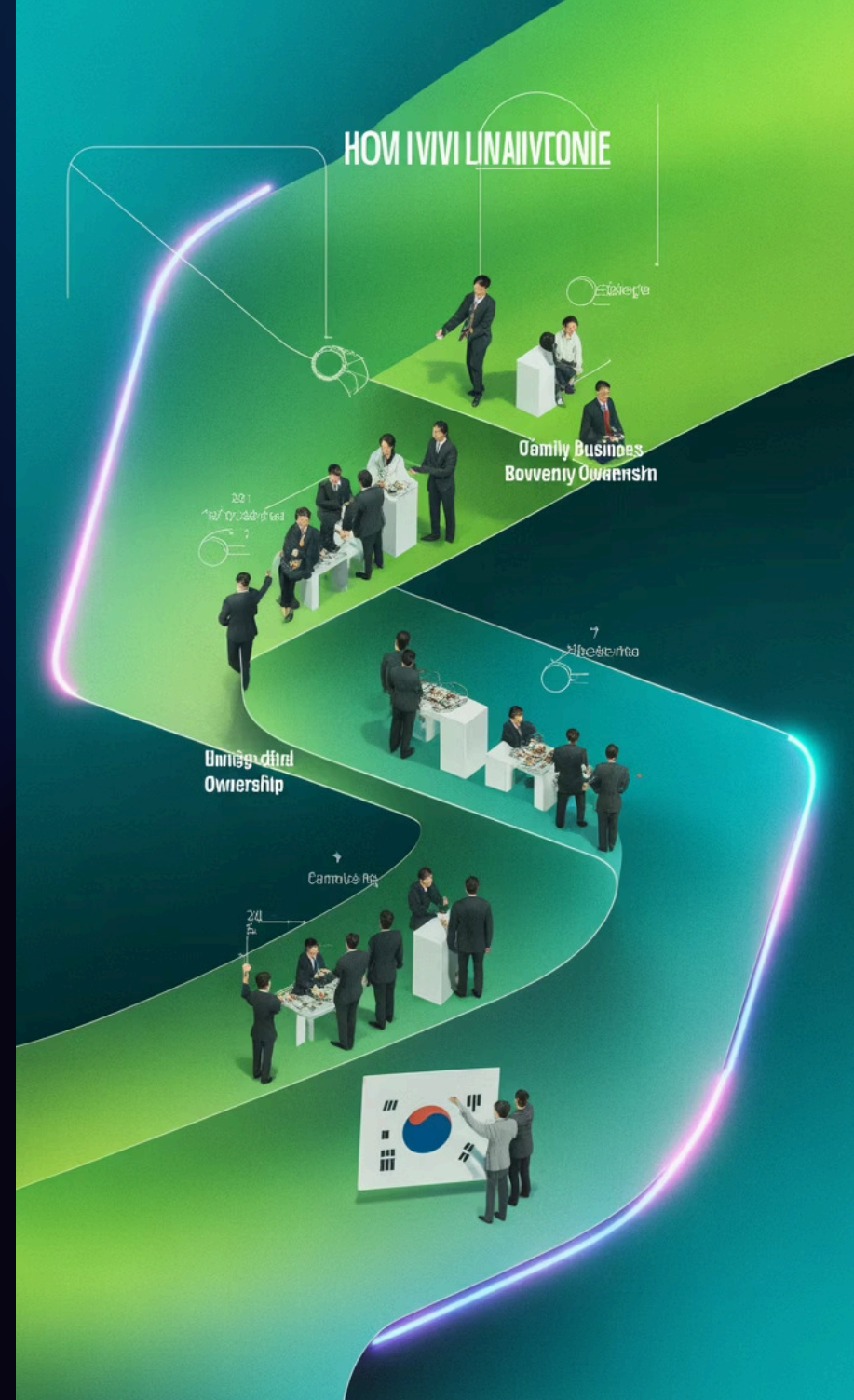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하거나, 부모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자녀가 대신 인수하면 그 가치가 무상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저가 재산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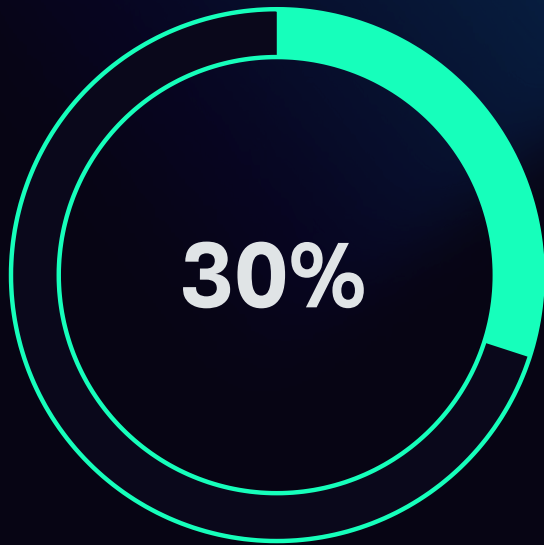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우회 증여 시도

부모 지배 A법인이 자녀 지분 보유 B법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익을 몰아주면,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녀에게 간접증여한 것으로 과세됩니다.



# 특정법인의 정의



지분 기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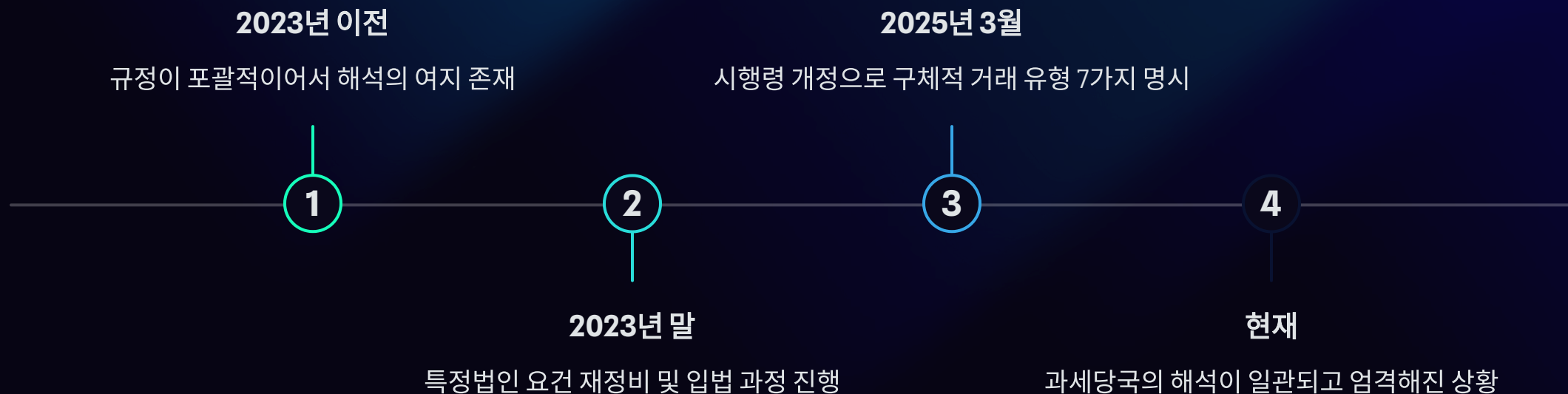
## 특정법인 요건

지배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합산하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를 뜻하며, 특수관계인은 그 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별히 연결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 대부분의 가족법인이 해당

은퇴 고객님이 70%, 배우자가 10%, 자녀들이 각각 10%씩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는 총 가족지분이 100%이므로 특정법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족이 40%를 가지고 외부인이 60%를 가져도 특정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법인 관련 최근 세법 강화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2025년 3월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 증여세 과세 대상 7대 자본거래



## 불균등 증자

신주 발행 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배정



## 불균등 감자

자본금 감소 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차등 소각



## 현물출자

출자가액 평가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이익



## 전환사채 등

CB, BW 발행·전환 시 전환가액을 유리하게 설정



## 초과배당

일부 주주가 배당 포기하거나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당



## 불공정 합병

합병비율을 시가보다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정함



## 주식교환·이전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지분비율이나 가치 변화





# 자본거래 유형별 상세 설명

## 불균등 증자 사례

지배주주(부모)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자녀)이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결과:** 자녀가 얻은 이익 = 부모가 준 증여로 봄

---

## 현물출자 사례

부모가 자녀 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해 지분을 많이 받게 하는 경우입니다.

**결과:** 평가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합병 사례

부모가 대주주인 A회사와 자녀가 지분 가진 B회사를 합병하면서, B회사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쳐줘 자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결과:** 그 이익이 증여로 간주

---

## 전환사채 사례

자녀가 낮은 전환가로 CB를 인수해 훗날 시가보다 싸게 주식으로 바뀌어 지분 이득을 보는 경우입니다.

**결과:** 전환 시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안전한 배당 설계 방법

1

## 지분비율대로 배당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배당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 60%, 자녀 40% 지분이면 배당금도 6:4로 분배합니다.

2

## 차등배당 절대 금지

정관에 허용조항이 있어도 세법상 초과배당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차등배당은 세제상 이점이 없습니다.

3

## 급여/상여 활용 검토

자녀가 실제 근무한다면 적절한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나 과다 급여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 10년 주기 증여공제 활용

부모→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식을 직접 증여하여 자녀 지분을 서서히 늘리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5

## 부부간 지분 활용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원으로 큼니다. 일부는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지분 구조를 분산하면 가족 전체로 볼 때 증여세 없이 옮길 수 있는 지분이 늘어납니다.

# 정관 작성 실무 팁

## 주식 종류 도입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도록 규정하면, 부모님은 우선주(고정배당, 의결권 없음)를 가지고, 자녀들은 보통주(의결권 있음, 잔여이익 청구권 큼)를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 자산은 고정된 우선주 가치로 제한
- 미래 기업가치 상승분은 자녀들이 가져감
- 우선주의 배당률, 의결권 제한, 전환 조건 명시

## 배당정책 규정

이익준비금 적립률을 높게 잡아 배당 가능 이익을 제한하면, 함부로 과도한 배당을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이익의 X%는 배당, 나머지는 적립" 가이드라인
- 배당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예방
- 세법상 무리한 배당 방지

☒ **전문가 협업 필수:** 정관 작성은 법률적인 작업인 동시에 세무와 직결되므로, 법무 전문가와 세무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 정관 작성 시 추가 고려사항



### 주식 양도제한 조항

기타 주주의 동의 없이 외부에 지분을 팔지 못하게 규정하여 가족 외 제3자에게株式이 넘어가는 상황을 대비합니다.



### 상속 시 지분 처리

"상속 개시로 지배주주의 지분이 분산될 경우 기타 상속인 지분은 회사가 우선 매수한다" 등의 조항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잔여재산 분배 규정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도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불균등 분배는 초과배당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례 A: 현금자산 30억 이전

## 옵션 1: 직접 증여

현금 30억원을 자녀 두 명에게 각 15억씩 직접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각 자녀는 약 4~5억원씩 증여세 부담
- 합계 약 9억원 세금
- 증여세율 30~40% 구간 적용

## 옵션 2: 가족법인 활용

부모 자본으로 가족회사 설립 후 회사가 자산운용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 자녀가 주주가 되려면 먼저 지분 증여 필요
- 지분 50%씩 증여 시 여전히 증여세 발생
- 단계적 이전으로 세금 부담 분산 가능
- 회사 운용 수익은 추가 세금 없이 자녀에게

**결론:** 가족법인을 거치더라도 지분 이전 단계에서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우나, 단계적 이전과 추가 수익 창출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 사례 B: 부동산 가족법인 활용



## 시나리오 1: 현물출자

부모가 시가 20억원 건물을 가족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회사는 건물 대가로 부모에게 신주를 발행합니다. 자녀 지분 희석을 막으려면 부모에게 충분한 주식을 주어야 하므로 자녀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 시나리오 2: 증여 방식

부모가 건물을 증여 형태로 가족회사에 넘기면, 가족회사가 수증자가 되어 법인세 약 4.4억원(22%) 납부하고, 자녀는 원래 증여세 약 5억원에서 법인세를 뺀 0.6억원 정도만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 절세 효과

직접 증여 시 5억원 내는 것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건물을 갖게 되어 임대수익 등을 창출하고, 법인세+증여세 합쳐도 직접 증여보다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C: 특정법인 활용 사업승계

20억

무이자 대여 한도

특정 조건 하 가능

1억

증여의제 이익

이하 시 적용

### 가수금 무이자 대여 전략

부모가 자녀 100% 지분 특정법인에 20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산출된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하이면 20억원까지 무상대여 가능"이라는 규정을 활용합니다.

### 장점과 단점

**장점:** 증여가 아니라 부채이므로 일단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 법인이 사업자금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인이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고, 세법 요건을 엄수해야 합니다.

# 핵심 원칙 및 주의사항

## 지분비율 준수

모든 배당과 거래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유독 큰 이익이 가도록 설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시가 거래 원칙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시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전문가 자문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유권해석 경향까지 검토하여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투명한 관리

모든 거래와 배분을 문서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와 판례는 가족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매우 엄격합니다.



# 최신 유권해석 경향

"A법인의 최대주주(부모)가 배당을 포기하여 B법인(자녀 소유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B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지배주주 측이 30% 이상 지분이면 '특정 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023년 3월 국세청 서면해석

## 엄격한 해석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규정들을 엄격히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 우회 차단

법인을 중간에 끼워 우회해도 특정법인 요건에 걸리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과세망 확대

가족법인을 통한 어떠한 우회적 이익 제공도 과세망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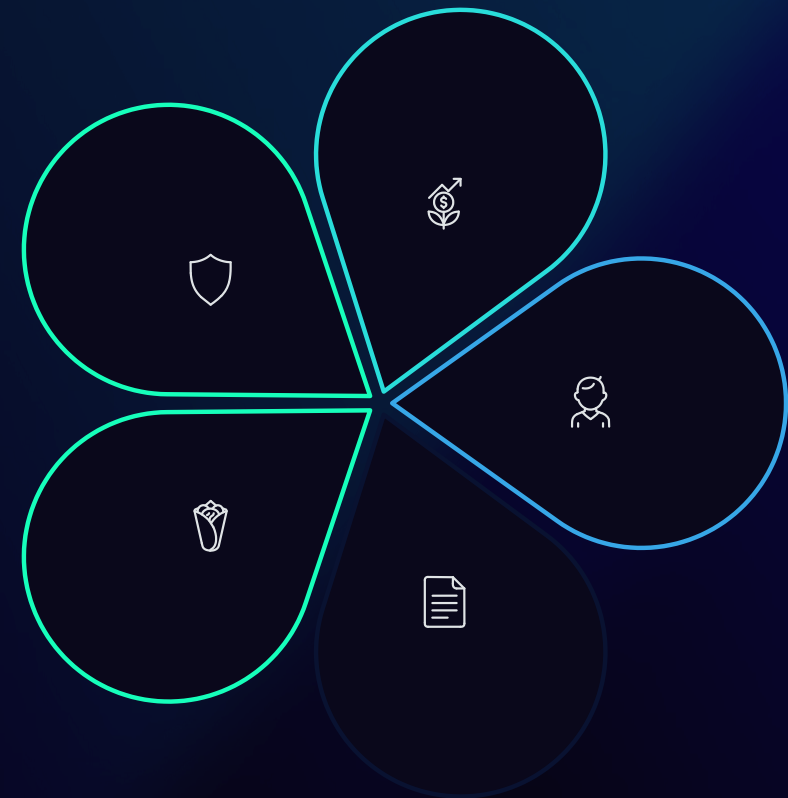
# 결론 및 종합 정리

## 성공적인 가족법인 운영의 비결

-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분관리
-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계획
- 정석적인 방법으로 조세회피 오해 방지
- 균등배당 원칙 준수
- 증여공제 한도 활용한 미리미리 지분 분산

## 피해야 할 위험 요소

- 초과배당을 통한 편법 증여
- 불균등 증자/감자 등 변칙 자본거래
- 시가와 다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
- 우회적 이익 제공 시도



-  세무 안정성
-  자산 증식
-  가업 승계
-  투명한 관리
-  공정한 분배

가족법인은 잘만 활용하면 상속세 대비, 재산 증식, 가업 승계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세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말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가족법인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